

단일 매장 매출 세계 1위 롯데면세점의 飛上

명동본점 매출 35% 신장
2018년 하루평균 110억원

월드타워점, 작년 '1조 클럽'
중견브랜드 매출 300% 올라

롯데면세점은 2018년 명동본점과 월드타워점 매출이 각각 4조 원, 1조 원을 돌파했다고 6일 밝혔다.

38년간 롯데면세점의 고도성장 요람 역할을 해 온 명동본점이 작년 12월 14일 매출 4조 원을 넘어 명실상부 '단일 매장 매출 세계 1위' 자리를 확고히 했다. 중국의 사드보복 여파로 잠시 주춤했던 명동본점 매출은 전년대비 약 35% 신장하며 2018년 일평균 110억 원을 넘어섰다.

1980년 오픈당시 22억 원이었던 연매출은 꾸준히 증가했으며, 중국인 관광객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2011년 1조 원을 달성했다. 이후 2015년 2조 원, 2016년 3조 원을 돌파하며 급격한 신장을 했으며, 3조 원 달성 2년만인 2018년 매출 4조 원을 달성하게 됐다. 사드 보복 이후 침체된 중국 단체 관광객을 대신한 하이공(대리구매상)의 수요 증가가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명동본점은 고객의 쇼핑 편의를 위해 지난 2016년 8월 본점 12층을 확장 오픈했으며, 작년 10월 명동본점 1층 '스타에비뉴 코너'를 리뉴얼 오픈 하면서 국내 최대 중소중견브랜드 편집매장인 '블루밍뷰티관'을 선보였다. 이를 통해 브랜드 다각화 및 동반성장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특히 작년 4월에는 총 100억 원을 투자하여 상위 V IP고객을 위한 '스타라운지'를 오픈했다. 입생로랑, 샤넬, 스와로브스키 등 '스타라운지'에서 진행되는 유명 브랜드 VIP초청행사는 고객들에게 뜨거운 반응을 불러 일으키며 또 다른 감동을 선사

하고 있다.

월드타워점 역시 지난 12월 23일 연매출 1조 원을 달성하며 '1조 원 클럽'에 가입했다. 시내면세점 특화를 재취득하여 오픈한 2017년 당해년도 5700억 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일년 만에 매출 1조 원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약 80% 신장률을 보였다. 잠실 롯데월드 타워의 우수한 관광자원 및 차별화된 명품 브랜드를 내세워 최근 강남권 신규 면세점들의 오픈에도 불구하고 괄목할만한 큰 성과를 일궈냈다. 특히 사드보복으로 인해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월드타워점에 입점한 국내 중소중견브랜드 매출은 전년대비 300% 신장하여 중소중견 브랜드와의 상생에 크게 기여했다.

2018년 국내 전체 매출은 7조 5000억 원을 돌파하며 창립 이래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2017년 매출 6조 원을 달성한 이후 일년 만에 달성한 기록이며, 전년대비 25% 신장한 수치다.

판매 채널별 매출 중 주목할 만한 점은 온라인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온라인 매출은 전년대비 50% 신장한 2조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또한 2013년 8%였던 매출 구성비가 5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한 25%를 차지했다. 인터넷 및 모바일 면세점 플랫폼 개선 및 인터넷 전용 상품 개발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으며, 적립금 증정 등 다양한 프로모션 행사를 통한 20~30대 고객 유치가 매출증가로 이어졌다.

이갑 롯데면세점 대표는 "급격한 시장 변화 속에서도 롯데면세점만의 38년간의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할 수 있었다"며 "업계 선두주자로서 한국 면세시장의 글로벌화와 국내의 잠재적 고객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월드타워점, 롯데면세점

전남 장성포 '레드향' 첫 수확

'칼라프루트 시범사업' 3년
한라봉·구아바·무화과 등
15개 농가 아열대 과수 농사

제주도와 전남 남부 지방에서만 나던 '레드향'이 장성에서 생산된다.

장성군은 지난 2017년 '칼라프루트 시범사업'을 통해 남면지역에 조성한 레드향 재배 하우스에서 레드향 첫 수확 행사를 가졌다고 6일 밝혔다.

'레드향'은 일반 감귤보다 크기가 크고 붉은 빛이 도는 만감류 과일로 일반적으로 기후가 따뜻한 제주도나 전남 남부 지역에서 1월에 주로 생산되고 있다. 당도가 높고 알맹이가 맹글한 식감과 과즙이 풍부해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또 비타민 C와 비타민 P가 풍부해 혈액순환, 감기예방, 피부탄력 등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성군은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고 신소득 유망작목 육성을 위해 레드향, 천혜향 등 만감류와 애플망고 생산을 2017년부터 적극 지원해 왔다. 현재는 15명의 농가가 참여해 레드향을 비롯해 한라봉, 구아바, 무화과 등 아열대 과수농사를 짓고 있다.

시범생산을 시작하지 3년 만에 본격적인 수확이 시작되면서 지역 농가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장성에서



장성 남면지역에 조성한 레드향 재배 하우스에서 레드향 첫 수확 행사를 가졌다.

레드향이 첫 생산임에도 평균 당도가 13브릭스(Brix)까지 나오는 등 생육이 성공적으로 이뤄져 더욱 고무적이다.

장성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레드향은 재배가 까다롭고 기온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꾸준히 재배 기술 지도를 해왔고, 참여 농가 또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면서 좋은 결실을 봤다"며 "하우스 660㎡당 순수소득을 8백만원 이상으로 예상돼 농가소득 또한 기대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확행사에 참여한 유두석 장성군수도 "만감류 불모지였던 장성에서 성공적으로 레드향이 생산되면서 지역 농가에 좋은 롤모델이 될 것으로 본다"며 "레드향이 장성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기술교육과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격려했다.

장성 레드향은 설 명절 전인 1월 중순부터 직거래 장터와 공판장을 통해 판매될 예정이다.

첫 레드향 생산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서 장성군의 칼라프루트 육성사업도 탄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장성군은 2016년부터 컬러 도시브랜드 '엘로우시티'에 발맞춰 다양한 컬러 과일 육성에 힘써왔다. 대표적으로 사인머스켓(청포도), 황도복숭아, 노란사과, 만감류(레드향 등), 단감(국내육성품종) 품종을 선정해 적극 지원해 오고 있으며, 현재 161농가가 참여하고 있다.

/전남 장성=봉채영 기자 bcy2020@metroseoul.co.kr

광주시, 올 노인일자리 2.4만개 만든다

558억 투입... 참여자 4464명 늘어
공익활동 1.6만, 시장형 2700명 등

광주광역시와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노인일자리사업을 대폭 확대해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광주시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총 558억 3000만 원을 투입해 2만 363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이는 지난해(411억 5500만원, 1만 5899명)에 비해 예산은 146억 7500만원(35.6% 증)이, 참여자 수는 4464명(28.1%)이 늘어난 것이다.

유형별로는 공익활동 1만 6059명, 시장형 2765명, 인력개발형 1047명 등이며, 올해 신설된 사회서비스형에도 492명의 일자리가 새로 마련된다. 사회서비스형은 돌봄시설이나 취약계층 지원시설 등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노인인력을 활용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로 기존 공익활동보다 최대 2

배의 활동시간과 수당이 보장된다.

특히 2019년에는 그동안 일자리에 참여할 수 없었던 장애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빛고을 질서지킴이' 사업과 어린이놀이터 시설물의 안전한 이용 및 전통놀이 체험을 도와주는 '꾸러기 놀이대장' 사업 등 따뜻한 복지와 세대 간 통합을 구현하는 맞춤형 신규 일자리를 적극 발굴해 시행한다. 각급 학교 화장실 청소 업무를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우리 학교 깔끄미' 사업도 교육청과 협조해 대상을 기존 중·고등학교에서 초등학교까지 확대한다.

이밖에도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는 노인일자리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노인일자리 종합포털 시스템을 구축해 일자리 상담, 교육, 취업연계, 사후관리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따뜻한 복지일 자리를 발굴하고 일하는 노인에 대한 인식 개선, 인권·안전교육 강화,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 노인일자리 사업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사업 시기도 앞당긴다. 지난해의 경우 3월에 시작했던 노인일자리사업을 올해는 저소득 어르신들의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실내 공익활동 및 시장형 사업단을 중심으로 1월부터 실시한다. 더불어 사업규모 확대에 따라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익활동은 신청자가 부족할 경우 60~64세(차상위 계층 우선)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사업 시기가 빨라짐에 따라 각 자치구와 빛고을노인건강타운, 효령노인복지타운에 노인일자리 참여희망자가 서둘러 신청하도록 당부했다.

김일용 시 복지건강국장은 "노후걱정 없는 행복한 광주 만들기를 위해 2022년까지 노인일자리 3만개를 창출해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하게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업 발굴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광주=봉채영 기자

롯데호텔제주 '플레이토피아' 패키지 선보

롯데호텔제주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픈한 국내 호텔 최대 규모의 놀이공간 '플레이토피아'의 선풍적인 인기로 힘입어, 아이들을 위한 '플레이토피아' 오픈 기념 패키지를 오는 2월 28일까지 선보인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패키지는 가족형 객실 디럭스레이크 패밀리로 1박, 키즈 프리패스권, 챔피언R 입장권, 성인 2인 조식, 해운 스위트 쿠션 등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도록 알차게 구성됐다.

키즈 프리패스권에는 다양한 혜택이

포함돼 있다. 보호자(성인 2인)와 함께 뷔페 이용시 아이는 별도의 요금 없이 식사할 수 있는 프리패스권 3매와 키즈 트래블 3종 키트, 조르단 칫솔, 키즈 치약, LCD 미니 칠판까지 받을 수 있다. '키즈 프리패스권'은 만 4세부터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 이용 가능하다.

연박시에는 달콤한 딸기 파르페, 마들렌으로 구성된 '더 라운지' 디저트 세트와 해운 풀 사이드에서 물놀이 후 몸을 녹일 수 있는 따뜻한 파네스프도 추가로 제공한다.



롯데호텔제주 플레이토피아. /롯데호텔제주

오는 18일까지 예약하는 선착순 300팀에게는 롯데호텔제주 공식홈페이지 예약 시 받을 수 있는 할인을 포함, 최대 10만원의 특별 할인 혜택까지 제공한다.

/김민서 기자 min0812@

오늘의 날씨

1월 7일 (월)
음력 : 12월 2일

수도권 날씨
-6 ~ 2°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해돋이 / 07:47 | 해질 / 17:29

연천 -13/2, 동두천 -11/3, 가평 -11/2, 파주 -12/3, 서울 -6/2, 양평 -11/3, 인천 -4/2, 수원 -7/2, 용인 -7/2, 평택 -11/3, 백령도 -1/4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